
		보 도 자 료		수도권매립지 종료		
		배포일자 2021년 10월 25일(월) 총 2매	 환경특별시 인천			
담당 부서	수산과	담당자	• 수산자원팀장 이의진 ☎440-4871 • 담당자 박종윤 ☎440-4874			
사진	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		참고자료		
	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				
보 도 시 점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	

인천시, 인공어초 설치해 어업인 소득 높인다.
-18억 예산 투입해 연안해역 50ha에 총 297개 설치 -

인천광역시(시장 박남춘)는 수산자원 조성과 해양생태계 복원을 위해 웅진군 소청도를 비롯한 3개 연안 해역 50ha에 총 297개의 인공 어초를 설치한다고 밝혔다.

10월 25일부터 11월 4일까지 웅진군 소청도 해역에 강제고기굴어초(16ha), 덕적도 해역에 다면체인공어초 및 방사형인공어초(32ha), 자월도 해역에 아치형어초(2ha) 등이 설치되며 해당 사업에는 18억의 예산 투입된다.

일명 물고기 아파트로 불리는 인공어초는 바다 속에 투여함으로써 어류가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구조물이다. 이번에 시설되는 인공어초는 어·패류·조류용 어초로 수산생물의 기초 생산기반을 높이고 산란과 서식 공간을 제공한다.

오국현 시 수산과장은 “연안 생태계 복원과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해, 어업인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 하겠다” 고 말했다.

한편, 인천시가 인공어초 조성사업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지난해 한국수산자원공단에 위탁·실시한 어획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공어초 설치 해역은 미설치 해역에 비해 평균 2~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.

<붙임> 2020년 덕적도해역 방사형인공어초 설치사진

